

# “남양주 위스데이 별내 전복형 도입 필요하다”

### 전복형 사회적경제 기반 공동체 주택 추진 세미나서

전북도 사회적경제 기반 공동체 주택 추진 세미나가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사진)와 (사)자치분권포럼 창년국이 주관하고, 온돌 협동조합과 사회혁신기업 더협이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사진)와 (사)자치분권포럼 창년국이 주관하고, 온돌 협동조합과 사회혁신기업 더협이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복형 사회적경제 기반 공동체 주택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사회적경제 기반 공동체 주택은 개발비용을 최소화해 임대료를 낮추고, 커뮤니티 공간을 넓히는 등 주거공간은 물론 양육, 보건, 생활, 문화 등 삶을 둘러싼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주택이나 토지가 투기의 수단인 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오로지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정착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고 밝혔다. 조현경 한겨레사회경제연구원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온돌협동조합 백강민 대표가 '사회적경제 기반 전복형 주거공동체 조성'에 대해 제안 설명하며, 이한술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지역형 사회적경제 기반 주거공동체의 필요성'과 김중빈 사회혁신기업 더협 이사는 '사회적협동조합 기반의 커뮤니티 사례-위스데이'를 강연한다. 토론자는 안수환 전북도청 공동주택 지원팀장, 박성운 (전)원광대 교수, 서난이 의원(전주시의회), 최병숙 교수(전북대 주거환경학과)가 나선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 별내에 선보인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는 협동조합형 주거 공동체 형태로,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구 뉴스테

이) 사업의 공공성 확대와 주거복지모델로 새로운 주거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준공 시점부터 큰 이목을 집중시켰다. 위스데이 별내는 입주자들이 설계단계부터 입주 후 운영까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새로운 방식의 주거 모델이다. 입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아파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료(약 20% 이상)와 운영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육아돌봄공동체'를 위한 물품을 공동구매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직접 운영한다. 한편, 2020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남양주 별내지구 위스데이(WESTAY)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첫 번째 아파트 단지(491세대, 전용기준 60㎡형 86가구, 74㎡형 252가구, 84㎡형 153가구)이다. 세미나는 행사 당일 유튜브 채널 '전북도 공동체주택'으로 검색하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유호상 기자



“공공의료 강화해달라” 6일 오전 전북도청 본관 앞에서 세계보건 의 날 기념 전북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의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 전북도, 3년 연속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 선정

전북도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토지에 대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간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할 실태조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유류 공유재산이 다수 발굴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간의 단순한 보존·유지 형태의 재산관리를 탈피하고, 유류 공유재산 발굴과 다양한 활용 지원방안을 강구해, 공공실현과 사회적 가치 제고 기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조화를 이루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류 토지를 우수자원으로 인식하고, 다양한 개발 잠재력과 잠재 활용가치 등을 종합 분석해 지역적인 특성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실태조사는 지방도 개설 후 잔여지(나대지)로 남은 도로부지 1,000필지를 선정하고, 사용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해 보존의 적합성 등을 판단, 활용할 계획이다. 유류속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 실태조사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전북도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 유류 토지는 주변 자원과 연계한 문화·편익시설 등에 개발 및 활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올 전북도내 배수개선 567억 확정’

### 김제 평사·백학, 부안 계화1·동진1지구 등 28곳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은 올해 전북도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로 28개 지구가 확정돼 이들 지역에 올해 5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28개 지구중 7개 지구는 올해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신규착수 지구로, 향후 이들 7개 지구에는 총 803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는 28개 지구는 김제 평사지구(35억), 김제 백학지구(50억), 부안 계화1지구(35억), 부안 동진1지구(10억) 등이다. 신규착수 대상지구는 김제 난봉지구, 김제 석담지구, 정읍 평령지구, 고창 고창지구, 임실 대정지구, 군산 점산지구, 진안 연장지구다. 앞으로 이들 신규착수 지구에는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원택 의원은 "매년 크고 작은 홍수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배수개선사업은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전북도내 유일한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만큼, 앞으로도 전북도내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민주 도당 “김제시의원 보궐 꼭 투표해달라”

### “서울·부산서 치러지는 선거에도 도민 관심·지지 부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4월 7일은 김제시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날이다”며 “김제의 권한과 책임을 위해 이번 선거에 꼭 투표해 줄 것”을 6일 호소했다. 선거 당일인 7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선거는 김제시나 선거구(검산·금구·백구·용지) 유권자에 한해 실시되는 선거로, 선거

인 수는 총 2만825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민주 도내 국회의원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 잇따라

### “변혁의 시대, 대전환의 역사 쓸 수 있도록”

#### 김윤덕 의원,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강동·광진구 일원서 시민 대상 합동 연설



#### 공식 선거운동 기간동안 SNS 게시 홍보 등 진행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갑)이 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서울 강동구, 광진구 일원에서 전주시갑 지역구 소속 도의원, 시의원, 당직자들과 총력 지원을 나시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 마지막 본투표를 하루 남겨둔 이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유세차에 올라 박영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시민들을 만난 김윤덕 의원은 “한 표가 부족하다. 주변 분들의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나가달라. 힘을 모아달라”면서 “달라지는 민주당, 성찰하고 변화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며,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부터 부동산 범죄, 예외 없이 풀어내고 단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동안 민주당의 모습에 화가 나지만 그래도, 서울에는 일 잘하는 박영선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여성의 따뜻함, 어머니의 강인함으로 상처받은 우리 서울을 포용하고 치유할 수 있는 후보가 박영선이다”며 “변혁의 시대 박영선이 서울시민과 함께

#### 한병도 의원, 익산을 지역 시·도의원들과 강북갑에서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 을)이 지난 5일 익산시 을 지역 시·도의원들과 함께, 4.7재보궐선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4.7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북구 갑 지역 책임 의원으로 임명된 한 의원은 이날 선거 유세에서 강북갑 지역 곳곳을 돌며 박영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날 선거 유세에는 전북 익산시 을 지역의 시·도의원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2인씩 조를 이뤄 강북구

내 주요 시장과 역사에서 박영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 플라스틱 1회용품 재질·두께 기준 신설해야

### 민주 윤준병 의원, 자원 절약·재활용촉진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플라스틱 1회용품의 재질과 두께 등의 기준을 신설하고, 택배 등 ‘수송포장’의 경우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 현실에서 기존의 1회용품 규제뿐만 아

니라,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1회용품은 재활용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이도록 조치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면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포장 폐기물의 실질적인 감량을 위해 현재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포장 부자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상한을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윤준병 의원은 1회용품의 재질·두

께 등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조자·판매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개정안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포장부자재의 종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송포장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윤 의원은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급한 과제”라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법적 장치를 강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민주 김수홍 의원, 황등로 간판개선 5억원 확보

### “석재산업 살길 모색·지역 특색 살리는 신산업 정착 노력”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 갑)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중앙간판개선사업 공모에서 익산시 황등로가 최종 선정돼 향후 황등면의 깨끗한 경관 조성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선정돼 올해 시행될 예정인

창인동에서 평화동 구간에 이어, 황등로가 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낙후된 원도심 지역의 낡은 거리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여겨진다. 특히, 황등로는 석재산업의 몰락과 함께 상업지역이 쇠퇴하게 되면서 폐업 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 중인 점포라도 해도 간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거리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익산시 도로과와 긴

밀히 협조해 공모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황등면 거리의 간판개선사업 지원 필요성에 대해 관계부처를 설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행정부는 2022년 중앙간판개선사업 대상지역에 황등로를 선정해 지난 5일 발표했다. 김수홍 의원은 “한 때 성황을 이루던 황등로 거리의 영광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첫 단계로 간판개선사업을 따낸 것”이라며 “석재산업의 새로운 살길을 모색하는 한편 황등면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